

공연 보며 되새겨보는 '가족의 의미'

'ACC_R 씨어터 인큐베이팅' 쇼케이스 3개 소규모공연, 29일부터 29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이 'ACC_R 씨어터 인큐베이팅' 쇼케이스 공연을 29일, 10월 3일, 5일 ACC 예술극장에서 선보인다.

'ACC_R 씨어터 인큐베이팅'은 체계적인 진행 과정을 구축,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공연 제작을 지원해 다양한 공연의 창·제작, 실연을 돕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이번 쇼케이스 주제는 '가족, 관계, 사회' 사회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바라보고, 이에 따른 가족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기획됐다.

쇼케이스는 시범공연, 낭독공연, 리서치공연 등 3개의 소규모 공연으로 마련된다.

첫 공연은 29일 예술극장 극장 2에서 선보이는 스티븐 키람 작 'The Humans'다. 최용훈이 연출한 이 작품은 추수감사절에 모인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 중산층 가족이 우울증, 치매, 병, 9·11 사건의 잔상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이민자들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내는 코미디다. 2016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토니상 최우수연극상 등 4개 상을 수상했다.

'가정식 백반 맛있게 먹는 법'으로 알려진 김숙중 작가의 '집사꽃길 84번지' 낭독극 공연도 10월 3일



극단 '작은신화'가 29일 시범공연으로 선보이는 연극 'The Humans' 공연 모습.

예술극장 로비에서 펼쳐진다. 낯익지만 헤어져 아들과 차승희, 키웠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승희 두 사람이 엄마의 죽음으로 서로를 알게 돼 벌어지는 이야기가 담겼다.

5~60대 아버지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긴 리서치극 '아버지라는 이름으로'도 10월 5일 예술극장 극장 2에서 공연된다. 시민 참여극으로 기획된 이 공

연에서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10명의 아버지들이 출연해 현장 토크쇼를 진행하고 사전 인터뷰 영상을 상영한다.

극단 '작은신화'가 참여해 시범공연을 펼치며, 아르코예술극장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올해의 연출가상을 수상한 극단 작은신화의 최용훈이 연출을 맡는다. 전 공연 무료 관람. /유연재 기자 yjyou@

달구별 빛고을 통기타 동맹



광주 지역 밴드 '프롤로그' 공연 모습

콘서트·워크숍 등...29일 풍암호수공원 일대

광주·대구 통기타 음악인들의 축제 '달빛통맹' (달구별 빛고을 통기타 동맹)이 오는 29일 풍암호수공원, 공동예술극장 일대에서 개최된다.

달빛포크협회와 (사)광주민예총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매해 광주와 대구에서 번갈아 열리는 교류 프로젝트로,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싱어송라이터 박문욱이 출연할 예정인 이날 행사는 '달빛통맹 포크콘서트', '달빛통맹 워크숍', '달빛통맹 잼나이트' 3개 섹션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달빛통맹 포크콘서트'는 오후 4시 30분 풍암호수공원 야외무대에서 개최된다. 이날은 조진영밴드, 그리Go밴드, 심상명밴드 등 대구 뮤지션과 김찬, 류의남, 프롤로그 등 광주 뮤지션이 출연해 '호수', '담쟁이', '바람의 노래' 등 다채로운 포크 음악을 선보인다. 박성연 밴드도 무대에 올라 류의남, 프롤로그와 합을 맞추며, 전

출연자와 관객이 함께 조용필의 '오후 생각'을 합창하는 무대도 마련된다. '달빛통맹 워크숍'은 오후 8시 공동 예술극장 일대 공동예술극장에서 열린다. 워크숍에서는 조용필의 '고추잠자리', '바람의 노래' 등 가사를 쓴 작사가 김순곤씨를 초청해 '누가 만들고 누가 듣는가?'라는 주제로 강의와 대담을 진행한다.

워크숍이 끝난 뒤 밤 10시부터는 광주·대구 지역 포크뮤지션들이 즉흥 연주를 선보이는 '달빛통맹 잼나이트(Jam Night)'가 펼쳐진다. 대구 뮤지션으로는 강현규·김태현·김학수 등 10팀이, 광주 뮤지션으로는 김원·부자밴드·안우진 등 8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전 프로그램 무료 관람.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신하 작 '튤립축제'

독립큐레이터 그룹 'OverLab' 두가지 기획전

장동콜렉티브, 29일까지 '앞만...' 전 김가혜, 10월 4~13일 'Over Here' 전

독립큐레이터 그룹 OverLab. (이하 오버랩·남구 구성로 76번안길 5-4 1층)은 지난 2017년부터 독립큐레이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왔다.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진행된 올해 프로그램엔 미학미술사와 예술문화학 전공자로 시각예술을 비롯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예비 큐레이터 김소진·이하영(팀명 장동콜렉티브), 김가혜씨가 참여했다.

정기 세미나와 독립큐레이터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과정과 첫 독립기획전시의 실현을 위한 지원 프로세스를 제공받은 참가자들이 두 가지 기획전 준비했다.

장동콜렉티브는 29일까지 신진 작가들의 다양한 시선을 통해 '연대'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불나비'전을 진행하고 있다. 초대 작가는 사진, 설치 작업을 통해 현대인의 단면을 보여주는 강수지 작가와 회화를 기반으로 여러 겹의 색을 쌓아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김은지 작가, 관



김은지 작 'Something's stay the same 2'

계·타인·자아에 관한 주제로 회화, 설치작업을 하는 정택용 작가다.

오는 10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Over Here: 기록된 순간 Specific moment'전은 김가혜 큐레이터가 기획, 기록되지 않은 역사(기억)를 정리하고 재구성해 예술적으로 기록하는 작가 두 명의 나무를 주제로로 개인적, 가족적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근현대사를 탐험하고 이를 재구성하는 작업을 선보인다. 광주 작가로는 대화를 통해 타인의 기억을 출판, 영상, 전시 등 다양한 매체로 기록하고 이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는 타라재이(송재영) 작가가 참여했다. /김미은 기자 mekim@

'思色'전 두번째 이야기 8명 작가, 30일까지 진한미술관

사색(思色)전 두번째 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진한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모두 8명의 작가가 참여해 다채로운 작품을 선사한다. 이신하 작가는 화려한 튤립의 자태를 은은한 수채화로 선보이며 이신숙 작가는 전통 의상을 입고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담은 '네팔 소녀의 미소'를 전시한다.

또 김은미 작가는 몽환적인 숲속 풍경을 다양한 색채와 점묘법으로 묘사했으며 김영란 작가는 시들여가는 연잎과 그 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의 모습을 자연스레 포착한 '유영 2'를 내놓았다.

그밖에 김성대 작가는 웅기종기 집들이 모여있는 따뜻한 마을 풍경을 캔버스에 옮긴 '달이 꽃이여라'를, 김미정 작가는 화사한 꽃과 여인의 모습이 어우러진 '여름날의 연가'를 선보인다.

그밖에 이대경·박미숙 작가도 참여했다. 이번 전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13일까지 화순 다산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문 콘서트 '광주 사이다-Talk' 28일 광주청소년 삶디자인센터

광주시가 주최하는 인문 콘서트 '광주 사이다-Talk'가 28일 오후 5시 광주청소년 삶디자인센터 팔라라홀에서 열린다.

'2019 인문도시 광주기반 조성사업'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장재열대표(청춘고민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가 '청춘의 고민, 인문학적

해석'을 주제로 강연하며 신은미(한국화 아티스트)씨가 공연할 예정이다.

'광주사이다-Talk'는 광주에서 사람 이야기를 담는 줄임말로 인문도시 광주를 지향하기 위한 기반 조성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표해록' 최부 선생 삶·사상 조명...오늘 전남대서 학술대회

금남(鎭南) 최부 선생(1415~1504)은 광주 광산구 무양서원에 배향된 인물 중 한명으로 '표해록'의 저자다. 그가 남긴 '표해록'은 표류문학의 역사적 사실을 엿볼 수 있는 중요 사료일 뿐 아니라 조상들의 문학적 상상력과 인간적 고뇌를 살펴볼 수 있는 해양문학의 보고(寶庫)다.

금남 최부의 삶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마련된다.

광주 광산구가 주최하고 전남대학교 철학연구소가 주관하는 '2019 금남최부학술대회'가 27일 전남대 이월호기념강의실에서 '호남표류기와 표해록'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금남 최부 선생의 사상의 근원과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자리로, '장한철 표해록'으로 본 18세기 제주도 선비의 삶(전남대 김미선 교수), '제주 경차관(濟州敬差官) 최부(崔輔)의 중국 표해(漂海)와 유교적 문명관'(원광대 김봉근 교수), "남만인의 표류"와 '표류지 조선'에 대한 서사적 기억-한문서사와 '하멜표류기'를 중심으로(이화여대 김수연 교수), '문순득 표해시발'의 특징과 그 경험에 대한 공유(목포대 최성환 교수)가 각각 발표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

27~29일 나주시 '신나는 예술여행-오아시스 페스티벌'

다다예술협동조합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19 신나는 예술여행-오아시스 페스티벌'이 27~29일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야외무대 일대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동시에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이 융합된 다양한 분야의 클래식콘(Classic+Contemporary) 무대를 토대로 지역 간, 세대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주의 역사를 담은 발레 창작공연 '천

학의 비상'과 더불어 양달수, 양모양모 등 공연이 펼쳐지며 박명준 예술감독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 김하정 감독의 '해설이 있는 발레'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외에도 나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공연, 나주를 테마로 한 다양한 디자인 굿즈 아트마켓, 체험부스 등도 운영된다. 또한 오아시스 페스티벌과 연계해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는 문준용 작가 초대전 'Hello, Shadow'이 펼쳐진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신양파크호텔 12월 송년모임 특별 감사이벤트

한 해를 마감하는 귀하의 소중한 모임. 귀하를 위한 특별 혜택을 준비하였습니다.

12월 송년모임 혜택 (연회행사시 적용)

- 각 연회장 메뉴 10% 할인
- 음료·주류 50% 할인
- 객실 이용권 증정
- 현수막 1ea 무료제공 } ※50명 이상 행사시 적용
- 빔프로젝트 무료제공

신양파크호텔 휘트니스클럽

특별회원 모집 [개인 (월) ₩300,000원]

- 회원 특전 -

- 사우나, 체력단련장, 수영장 무료이용
- 레스토랑 이용시 10% 할인
- 객실 이용시 50% 할인
- 요가, 에어로빅, 수영 단체레슨 무료